

방화벽 없고 스프링클러 부족...허술한 안전 대책

대기업 이름값 못하는 안전관리 대책

발화 지점 인화성 강한 사고무 20여t 등 보관에도 방재시설 미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했지만 용량 작아 화재 제압 역부족
노조 “경보벨 안 울려 연기 보고 대피”...부실한 안전 매뉴얼 지적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사고와 관련, 회사 측의 안전·방재 대책 마련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안전 사고가 빈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상황에서 대규모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에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수준 낮은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커지는 모양새다.

◇위험물 천지인데, 방화시설·벽도 없어?=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0분께 발생한 화재로 공장 전체 면적 23만㎡ 중 14만925㎡에 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초기 발화 지점으로 사고무를 대우는 시설인 산업용 마이크로 오븐이 설치된 건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3층 콘크리트 구조물로 철판으로 외벽이 밀폐돼 있었고, 내부에는 인화성이 강한 사고무 20여t을 비롯 보관돼 있었다. 사고무를 대우는 오븐에서 화재를 감지, 방화문이 내려왔는데 불길 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화재가 확산됐다는 게 회사 안전환경팀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재 초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벨이 울렸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작동했다”면서 “그러나 불길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내부 인력이 자체 진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CO₂ 소화기는 불이 난 설비 전

장에 2개가 설치돼 있었고 고무 예열 구간 위에서 터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화문 오작동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용량이 지나치게 작아 화재를 제압하기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미흡한 안전 설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 때문인지 불길 확산을 막는 방화벽은 아예 없었고 화재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거대한 공장에 일부만 있어?=일부 구역에만 설치된 스프링클러 문제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자동창고 쪽에만 설치돼 있고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정련공정이 있는 주 공정 라인에는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충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를 제압할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보니 화재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화재가 공장 바닥이나 설비를 타고 확산된 것이 아니라 천장 위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뒤쪽 공정으로 퍼졌으며 합판이 붕괴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방 시설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얘기가.

◇화재 진압 중에 완제품 빼내도 되나=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이 한창이던 이날 오후 1시께 회사 직원들이 일부 성형 이후 공정에 있던 반제품 타이어와 완제품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틀째인 18일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불길이 지붕을 타고 확산되자 공장 내 타이어들을 급히 밖으로 옮겼다는 게 직원과 노조 조합원들 설명이다. 인명 피해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소방 당국의 허락 없이 위험한 시설을 돌아다니며 빼내는 게 적절한 소방 대책이었는 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노조측은 “화재 발생 당시 공장 내 방화문은 내려지지 않았고 경보벨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 점과 “다수의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서야 스스로 대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초기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설비는 작동했지만 화재 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 “작동 여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감전사·사고사...지난해만 금타 노동자 3명 사망

잇따르는 사고, 대책 마련 시급
고용부 관리 감독 문제도 제기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름값을 못하는 대기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안전 사고가 빈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경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8월 19일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발전기 수리 중 감전돼 숨졌고 앞서 지난해 7월 2일에는 광주공장 지게차에 실린 원자재가 쏟아지면서 노동자를 덮쳤다. 곡성공장에서도 지난해 4월 29일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이들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노동청이 관련 사고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사고로 작업이 중지되고 경찰과 노동

당국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대형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의 소홀함을 언급하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도, 작업장 내 사고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류상 감독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 상 도심 속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적절한 안전·방재 대책과 노동자 보호 방안이 시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기아차 근로자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

3공장 작업 중지 명령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 공정을 포함한 기아차 3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8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3공장에서 조립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 A씨가 차량을 운반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 작업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1t 트럭 조립라인 중 하부 품질검사 구간에서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차량 하부를 육안으로 점검하던 중 차량을 움직이는 행거 설비와 인근 고정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여러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관리자도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사고 원인 및 설비 결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문문에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